

감사의 말씀

기부 릴레이 진행중

올해에도 100인 기부 릴레이의 이کم으로서, 주자로서, 그리고 다양한 행사의 다양한 형태의 기부자로 '2008 여성희망캠페인'을 의미있게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해마다 추진되는 5월 한 달의 '여성희망캠페인'이 금년에는 우리의 어린 딸들이 밝힌 촛불의 힘으로 유모차를 앞세운 주부들, 젊은 직장여성들을 비롯해서 시민과 정치인까지 시청광장으로 불러내어 국민의 주권 행사를 통해 행정권과 정치권이 민생을 우선 돌보지 않고서는 견뎌내지 못하게 하는 촛불대행진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캠페인의 의미가 예년과 달랐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딸들과 여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보호자, 돌봄의 대상에 머물거나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당당한 주체적 존재로서 참여 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한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여성운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 여성희망캠페인의 화두는 해진이와 예술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와 다문화가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폭력근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신문과 공동으로 전개한 캠페인은 '이제 기부도 룬테일 시대'라는 명제 하에 80%의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십시일반의 기부문화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캠페인의 성과는 어려운 경제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름없이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사들이 개최되었고 100인 기부 릴레이의 성과도 111명의 이کم이들이 2300여명의 주자들을 줄 잇게 하였으며 기부금의 중간집계는 1억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50%이상의 이کم이가 31일간의 릴레이를 완주하였는가하면 6년 연속 이کم이로 나서 완주한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것입니다. 성과물은 예년과 같이 화두에 걸 맞는 사업지원에 배분될 것입니다.

회가 거듭될 때마다 재단이 바라는 것은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늘진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성 또는 여성가장의 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한껏 느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성희망캠페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보답하여 줄 것을 간곡히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멋있는 외모와 훌륭한 Leadership으로 여성계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 모두가
아름답게 지내. 재단의 기획홍보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듣고
노래 이색 100인 기부 릴레이에너로 수고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뜻깊은 활동이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기부 부탁드립니다.

2008. 6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 영 숙

박영숙